

보성군, 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국민라이딩 대회 개최

웰니스 관광지 제암산자연휴양림, 전국 라이더들의 축제 무대

전남 보성군에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가족들이 모인다. 군은 오는 9월 27~28일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보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 및 국민라이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도의 명산 제암산과 일림산을 배경으로 이틀간 펼쳐진다. 27일에는 박진감 넘치는 다운힐 경기가, 28일에는 크로스컨트리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국민라이딩 대회가 열린다.

국제 대회 기준을 충족하는 제암산 다운힐 코스(1.4km)는 급경사와 곡선로가 어우러져 짜릿한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이

다.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을 출발해 담안·임수저수지 둘레길, 일림산 응추계곡 임도를 경유해 다시 제암산으로 돌아오는 16km 코스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총 상승고도 633m, 하강고도 636m의 산악지형을 오르내리며 제암산과 일림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국민라이딩 대회는 제암산자연휴양림 잔디광장을 출발해 담안저수지를 한바퀴(2.5km) 돌고 금년에 조성한 맨발길(1.6km)을 직접 체험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참가자 편의를 위해 자전거 50대를 무료 대여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중식과 기

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급 자전거 등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돼 있으며, 개회식은 28일 오전 9시 30분 제암산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가 산악자전거의 매력을 알리고, 보성군 산림휴양시설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운힐·크로스컨트리 경기는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누리집(www.kcfmtb.or.kr) 또는 전화(043-272-9724)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4만 원이다. 국민라이딩 대회는 보성군 산림산업과(061-850-5481)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전남교육청, '2025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개최

18~27일 구례군 일원... 축구·배구 등 24개 종목 기량 겨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8부터 27일까지 2주간 구례군 일원에서 '2025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육상, 배구, 피구 등 총 24개 종목에 도내 학생 6,120여 명이 참가하여 학교 스포츠클럽 시간에 갈고뒀던 기량을 겨룬다.

경기는 구례군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관내 각급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분산 운영되며, 지역축제와 맞물려 구례군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물들 전망이다.

올해 축제는 별도의 개막식 없이 종목별 경기가 곧바로 진행된다. 18일부터 24일까지는 사전 경기와 예선전이 열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본경기가 치러진다.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간단한 만들기 활동, 건강 체력, 체력 증진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경기 외에도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즐겁게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운동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학생들의 건강과 바른 인성의 소중한 자산이다.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협력, 공정, 존중의 가치가 곧 살아있는 전남 의(義) 교육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공동체 가치를 배우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확대,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체육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염성호 기자

나주시,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성황

전국 동호인 1천여 명 한자리에... 생활체육도시 위상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태권도 동호인 1천여 명이 참여한 '2025년 국무총리배 전국 생활체육 태권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생활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했다.

16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나주종합스포츠타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나주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회는 공인품새 개인전, 단체전과 태권체조 단체전(7~9인)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졌다.

특히 공인품새는 유치부부터 실버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나이와 실력을 뛰어넘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태권도의 매력을 선보였다.

참가 선수와 지도자, 보호자들은 "쾌적한 경기 환경과 나주시만의 따뜻한 환대가 인상 깊었다"며 "나주에서 대회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국기원 승품단 대회, 4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 선발 1차전 및 전라남도지사기·지사배 태권도 품새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생

활체육 기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나주시장기 태권도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찾아주신 태권도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전국 대회 유치에 확대해 생활체육도시 나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태권도 가족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전국 대회 유치에 확대해 생활체육도시 나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아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콘 커퍼스테이션 전 타석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풀플랜싱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정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화순군청 임애지 선수, 세계선수권 동메달... 한국 여자 복싱 새 역사

파리 올림픽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메달 획득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청 복싱팀 임애지 선수가 지난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 복싱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4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임애지 선수는 8강전에서 브라질의 타티아나 헤지나 지 지수스 사가스 선수를 상대로 5대0 판정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준결승에서 대만의 황사위원 선수에 패하여 값진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임애지 선수는 지난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어 이번 세계선

수권대회에서도 메달을 획득, 한국 여자 복싱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임애지 선수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이번 성과는 임애지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과 팀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화순군청 복싱팀이 한국 복싱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축구 홈경기, 순천에서 개최

27일 오후 2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1995와 대결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남드래곤즈 홈경기를 오는 27일 오후 2시 팔마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는 K리그 2부, 14팀 중 5위인 전남드래곤즈와 리그 3위인 부천FC1995 팀 대결로 K리그 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또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순천 홈경기인 만큼 시민들에게 프로축구의 생동감을 제공하고, 지역 축구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드래곤즈와 부천FC1995의 경기를 통해 지역사회와 구단이 함께하는 축구 문화 확산에 힘쓰

한국 남자배구, 세계선수권서 아르헨티나에 1-3 패배... 16강행 좌절

11년 만에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이 세계의 높은 벽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시나에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6일 필리핀 케손시티에서 열린 2025 FIVB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에 세트 스코어 1-3(22-25 25-23 21-25 18-25)으로 졌다.

지난 14일 프랑스와 첫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으로 완패했던 한국은 아르헨티나도 넘지 못하며 2패째(승점 0)를 기록, 16강행이 좌절됐다.

현재 1위는 아르헨티나(승점 5), 2위는 2경기를 남겨둔 프랑스(승점 3)다. 아르헨티나, 프랑스와 경기를 앞둔 3위 핀란드는 승점 1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 조 2위 안에 들어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데, 18일 열리는 핀란드와 3차전에서 승점 3을 따내도 프랑스-핀란드전 종료 후 두 팀 가운데 한 팀은 승점 4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이날 한국은 블로킹 싸움에서 10-15, 서브에서 5-9로 밀렸다.

히수봉(현대캐피탈)이 17점, 임동혁(국군체육부대)이 15점으로 분투를 펼쳤으나 팀의 패배를 막을 순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아포짓 스파이커 파블로 쿠카르체프는 양 팀을 통틀어 최다인 21점을 폭발했다.

한국은 1세트에서 22-21로 리드했으나 내리 4점을 헌납하면서 기선을 빼앗겼다.

흐름 전환이 시급했던 한국은 2세트에서 점전 끝에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으나 3세트 막판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무너졌다.

4세트에서는 16-19에서 연속 5실점하는 등 반전을 만들지 못했다. /뉴시스